

# “사람 먼저 되라는 스승 의재 가르침 깊게 자리 잡았죠”



의재 허백련

매해 설날이면 무등산 자락 선생님 댁에 다함께 모여 떡국을 먹었다. 상을 물리고 나면 자연스레 화선지와 떡을 내왔다. 누구는 난을 치고, 누구는 국화를 그리면 멋들어진 한복의 그림이 완성됐다. 가끔 선생은 그림에 제(題)를 썼다. 월야 양계남(74·전 조선대 교수) 화백이 기억하는, 스승 의재 허백련(1891~1977)과 연진회 회원들이 함께 한 1970년대 설날의 ‘춘설현’ 풍경은 조금은 낭만적이다.

지난 10일 의재 제자였던 양계남 화백, 계산 장찬홍(75)화백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의재 毅齋 산이 되다-연진회로 이어진 의재 정신과 예술’(10월 20일까지)전을 관람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기획전에는 의재와 그의 맥을 이은 연진회 회원 작품 40여점을 비롯해 사진·영상·편지 등 각종 아카이브 자료들이 함께 전시됐다.

칠순이 넘은 두 화백은 스승이 떠난 지 40여년이 넘었지만 스승에게 들었던 말, 스승과 함께 했던 일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 스승에게 받은 칭찬에 대해 이야기할 땐 꼭 어린아이 같았다.

“선생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편안함이에요. 큰 어른이 있으면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든든함이 있었어요. 엄숙함과 편안함이 함께 한다고 할까요. 선생님과 있으면 세상만사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음, 음’ 이러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죠.”

몇차례 퇴짜를 맞고 제자가 된 양 화백의 회고다. 두 사람은 확대돼 전시장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을 한참동안 들여다봤다. 의재가 춘설현을 나서 무등산 아침 산책길에 나서는 뒷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이다. 자신들이 아침이면 늘 보던 장면이기도 했다.

“춘설현의 창문이 굉장히 컸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너무 환해요. 창호지에 비쳐 들어오는 햇살이 참 아름다웠죠. 선생님하고 차를 마시고 있으면 꼭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 화백의 이야기는 전시를 기획한 황유정 큐레이터에게 영감을 줬고, 전시장엔 ‘춘설현’ 공간이 상징적으로 재현됐다. 이 곳에는 두 화백과 최영국·남경희 화백 등 4명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의재가 제(題)를 쓴 ‘이양신성’(怡養神性)이 걸려 있다.

전시장에서 오래된 사진과 편지 등을 보며 두 사람은 소회에 젖었다. 스승 생일날 모여 찍은 사진,

‘인문학의 요람’이었던 춘설현을 찾았던 오지호·이은상·함석헌·정일형 등 각계 인물들과 ‘25시’ 작가 게오르규의 사진도 눈에 띈다.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려야 하지만 글씨도 잘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학문도 상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무엇보다 그 전에 인간,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제 맘에 넓고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처럼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모신 걸 보면 전생애 제가 참 귀찮은 일을 했던 듯 합니다.(웃음)”

장 화백은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름에 연 늘어나 듯이 좋아졌구나.’ ‘선상에 봉이 날아들겠다.’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낙선 인사를 가면 손수 차를 내리고 격려해주셨다”며 “여러 일화를 통해, 또 곁에서 직접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제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정성과 사랑으로 대하셨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1932년 작 ‘목포도(墨浦圖)’에 큰 감명을 받았다. 화선지 6폭을 이어 붙인 대작 ‘목포도’는 수목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포도 고목의 갈갈한 잎사귀와 구불구불한 줄기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선생님 문하에 있을 때 대작을 그리시는 모습은 못봤는데 열기왕성한 시절의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작품을 보니 참 좋네요. 춘설현에 다니던 15년간 선생님의 묵화에 푹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사군자에 모란·파초·연꽃·포도 등을 합친



‘의재 산이 되다’전에서 첫 공개된 허백련 작 ‘목포도(墨浦圖)’.

‘10군자’를 정립하셨는데 담백한 먹으로 그린 작품들의 매력은 이루 말할 수 없죠.”(양계남)

일제 강점기에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민족주의자였던 의재는 우리 시대 추구할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주장하고 단군신전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1947년 ‘삼애학원’(광주농업기술학교)을 설립해 30년간 농촌 지도자를 양성했다.

“내게는 날카롭고 딱딱한 골필 보다는 흠뻑한 중묵이 마음에 들어요. 이미 무등산에 사니까 필법도 무등산 같이 두리뭉실하게 달라진 것인지도 몰라.”

의재가 생전에 한 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940년대 비단에 그린 ‘설경’ 작품과 ‘농경도’, ‘홍익인간’ 등의 의재의 대표작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또 문장호·박병보·양계남·장찬홍·이강술·최덕인·허달재 등 연진회 회원들의 작품도 전시돼 ‘남중화의 마지막 거목’으로 불리는 의재에게서 이어진 남도 수묵화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19일 ‘춘설현’ 등의 의재의 흔적을 찾는 유적 답사를 진행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의재 제자 양계남·장찬홍 화백  
“말씀 아닌 행동 보여주셨던 분”  
1932년 작 ‘목포도’ 첫 공개 감명  
광주시립미술관 10월20일까지  
‘의재(毅齋)산이 되다’ 전  
연진회 회원 작품·아카이브  
9월21일 무등산 의재 흔적 답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의재 산이 되다’전에서 만난 장찬홍(왼쪽)·양계남 화백과 4명의 제자·의재의 합작도 ‘이양신성(怡養神性)’.

## 광주시 건축상 공모전 9월 2일~27일 접수

제23회 광주시 건축상 공모전이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회장 강현구)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주거와 비주거(리모델링 포함)로 나눠 열리며 광주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이나 사용 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상으로 설계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주어진다. 부분별 금상에 100만원이 수여되며 은

상과 동상도 각각 1점씩 선정한다. 또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주어지며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에 동판을 부착해 준다. 이번 공모에서는 작품 패널, 설계 설명서, 작품 사진을 제출했던 데서 벗어나 작품 패널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좀 더 많은 건축사들이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작품 접수는 오는 9월2일부터 27일까지다. /김미은 기자 mekim@

##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이음’ 공연 26일, 풍암동 마을카페 싸목싸목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 ‘이음’이 56번째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서구 풍암동 마을 카페 싸목싸목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음악회 ‘이음’은 (사)문화예술협회가 지역사회의 공연예술 저변확대와 건전한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짝수 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음악회다. 이날의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상연 클래식 인문학 강사가 진행을 맡은 이번 음악회에서는 테너 박성철이 김효근의 ‘첫사랑’, 소



프라노 김아람이 레온카발로의 ‘아침의 노래(Mattinata)’를 무대에 올린다. 문정식이 김완선의 ‘뻐애로는 나를 보고 웃지’를 전자 관악기 ‘EWI’ 연주로 선보이고, 팝페라 그룹 크로스 포먼이 영화 ‘어바웃 타임’ 삽입곡 ‘IL MONDO’ 등을 공연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각 무대마다 해설이 함께한다. 무료 공연.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 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 10% 할인
- 음료·주류 .....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Shin Yang Park Hotel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